

우리의 등잔을 “손질하여 타게”<sup>13</sup>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인 제 남편은 최근에 누가 준비되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지 언제나 느낌이 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고 올 때 “그 방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끼고 ……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 모든 요긴한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sup>14</sup>

성전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일회성 행사 이상의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합당하게 구원 의식을 받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그에 따른 성약을 진심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이디어 케일리 멜로가 린다 케이 버튼에게 보낸 쪽지, 2014년 8월 31일.
2. 러셀 엠 벨슨,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41쪽.
3. 알마서 49:8; 또한 6-7절 참조.
4. 교리와 성약 52:14.
5. 마태복음 25:1-2, 4-11;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25:12 (Matthew 25:12, footnote a)
6. Marvin J. Ashton, “A Time of Urgency,” *Ensign*, May 1974, 36.
7. Spencer W. Kimball,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256.
8. 리차드 지 스코트, “성전 축복을 받음”, *성도의 벗*, 1999년 7월호, 29쪽.
9. Bible Dictionary, “Temple.”
10. 교리와 성약 104:2.
11. Bonnie L. Oscarson, “Greater Expectations” (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satellite broadcast, Aug. 5, 2014); lds.org/broadcasts; 또한 누가복음 12:48; 교리와 성약 82:3 참조.
12. 러셀 엠 벨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8쪽.
13. 교리와 성약 33:17.
14. 교리와 성약 109:13, 15.



진 에이 스티븐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 하나님의 성약의 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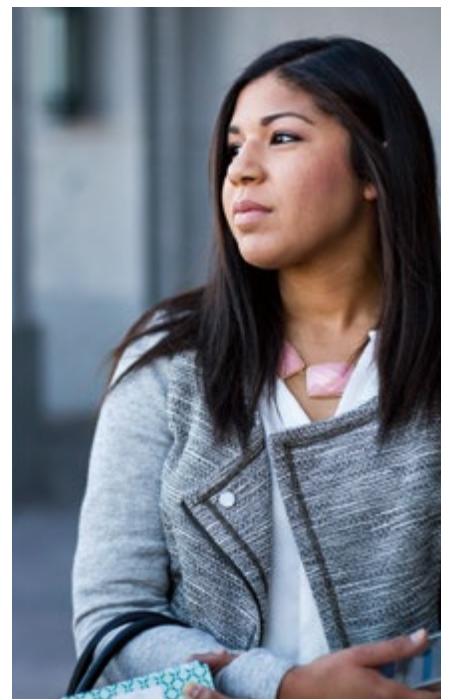
하나님의 딸들이 성전과 그들이 맺은 신성한 성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합창단이 노래한 메시지를 간증해 주는 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제 간증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성약의 딸로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황, 개성이 어떻든 그것들은 우리를 갈라놓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3주 전에 한 침례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그 개인적인 성약의 권능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여덟 명의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마침내 특별한 날이 왔다는 경건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밝은 표정들을 마주해 보니, 이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실 관점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에머와 소피아, 이언, 로건, 에이든, 윌리엄, 소피, 마이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각각 침례 성약을 맺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그

어린이들은 여덟 살 난 아이로서의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하나님과 첫 번째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았던 날을 회상해 보십시오. 상세하게 기억나든, 몇 가지만 기억나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의 중요성을 지금 느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고 물속에 잠긴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자 성약을 맺은 딸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되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성약은 우리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해 주고, 그분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와 그분 왕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느끼게 해 줍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례 성약이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길의 관문일 뿐입니다. 앞으로 있을 여정은 성전 성약을 맺는 것과 신권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을 바라봅니다.”<sup>1</sup>

성약을 맺는 것뿐 아니라 성약들을 충실히 지키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이며, 기쁨입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사셨던

저의 의로운 부모님에게서 성약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다정한 어머니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성약의 딸이 매일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가를 분명하게 목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린 소녀였을 때도 어머니의 선택은 어머니의 우선순위를 반영했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나타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여정에서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셨을 때, 화평과 권능, 보호가 어머니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상 생활은 구주를 향한 사랑과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어머니의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시게 된 시작점은 다소 특이합니다. 때는 1936년이었습니다. 두 분은 진지하게 교제하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남아프리카로 가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본인이 합당하고 기꺼이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독님께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과정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교제 상대인 헬렌에게 보여 주었고, 두 분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봉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지로 떠나시기 전 2주 동안, 두 분은 매일 만나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 부근의 메모리 그로브로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중, 금식과 기도로 인도를 구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클래론에게, 원한다면 떠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남성이 아내와 가족을 집에 남겨 두고 임지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신권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은 후, 두 분은 아버지가 선교 임지로 떠나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먼저 어머니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뒤이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집행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사진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도, 꽃도, 결혼식을 축하하는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성전과 자신들의 성약에 집중했습니다.



필리핀 라스피냐스

성약이 그분들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6일만에 눈물 어린 작별인사를 한 후, 아버지는 남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의 결혼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맺은 그 신성한 성전 성약은 2년 동안의 이별을 감내할 힘과 권능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성약에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분들의 단기적인 희생과 이별을 능가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족의 기초를 놓는 이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약을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헌신 말입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의로움의 모범은 저희 가족에게 여전히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삶에서 보여 주신 모범은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정이든 장차 꾸리게 될 가정이든, 가정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sup>2</sup>

부모님의 곤고와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환하신 지 3년만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아버지도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해군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4년 동안 아버지는 집을 떠나 계셨습니다.

다시 헤어져 있는 그 시간은 부모님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고 애타며 불안정했던 나날 중에도, 영원한 약속과 고난 중에 위안과 화평을 주는 영의 속삭임이 어머니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행복과 기쁨, 사랑과 봉사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구주에 대한 사랑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과 놀라운 소통을 하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하신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sup>3</sup>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어머니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자신이 충실하게 맺고 지킨 성약을 통해 강화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곳곳은 제 어머니의 삶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과 그들이 맺은 신성한 성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신

모범처럼, 우리가 믿고 성약을 지키겠다고 선택할 때, 그것은 후손들에게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전 성약의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축복들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삶을 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양한 연령층의 자매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여덟 살이 된 메리를 만났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듯이 메리도 가족 역사 조사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1,000 명의 이름을 성전 사업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메리는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자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열세 살이며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브리아나는 닐 에이 앤더슨 장로님의 성전에 관한 도전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sup>4</sup> 브리아나는 성전 사업을 위해 수백 명의 이름을 준비했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도 대리 침례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신성한 일을 통해, 브리아나는 지상의 조상을 향해서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청년 독신인 앤피사는 일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지만, 그래도 매주 성전에 참석할 시간을 만듭니다. 앤피사는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계시를



구하고 화평을 찾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랑스러운 캐티야는 성전을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키예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캐티야와 지부 회원들은 1년에 한 번씩 3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독일에 있는 성전에 가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 헌신적인 성도들은 버스 안에서 기도했고, 경전을 공부했고, 찬송가를 불렀으며, 복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캐티야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인생 길이 성전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데 필요한 신권 의식을 받으라고 권유하십니다. 각 성약은 개인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큰 변화는 주님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갈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고] ……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있고] ……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게”<sup>5</sup>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고한 간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의 모든 소망과 약속과 축복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성약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8쪽.
2. 린다 케이 버튼, “사람 구함: 구원 사업을 서두를 힘과 마음을 지닌 사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23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4. templechallenge.lds.org 참조.
5. 교리와 성약 109:22.



넬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 여러분의 빛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하고 참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복음의 빛과 진리를 우리 삶에 더하는 것, 둘째는 그 빛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소중한 중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 진리를 압니다. 그 진리를 수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 살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하고 참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2014년 9월호 *리아호나*에서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분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와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이해하여 모든 것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sup>1</sup>

자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보즈와나에 이르기까지 저는 자매 여러분에게서 모범을 보고, 간증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